

<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

시편27:4 / 새찬송가 79 (통일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다윗은 하나님께 최상의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은 환멸을 불러일으키며 부귀와 영화는 허무를 불러일으키며 인생에서의 행복은 불안과 불행을 예고하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며 지식이 더해져도 근심이 더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전1:18).

다윗은 즐거움이 즐거움을, 기쁨이 기쁨을, 행복이 행복을 부르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시27:4).

2.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며 사모하는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의 삶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 저주로 인해 놀이는 일이 되었습니다(창3:16-19).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저주의 일도 우리 인생의 본업이 아니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고요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봄)하고 사모하며 즐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 일을 예언하였습니다(사35:1,2).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들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 공로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자들은 다 죄악에서 또 질병에서 저주에서 회복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사35:3-6).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고 변함없이 관조하면서 사모하게 됩니다(행2:24-27).

3.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몸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최종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의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목적이지 아님을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어야 함은 그래야 하나님을 관조하며 찬양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관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몸이 강건해야 하기에 병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삶의 환경도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삶에 있어서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닌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잠30:7-9). 설령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도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기 위해서입니다(시42:1-5).

이처럼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마6:33).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를 구할 때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왜 죄 사함과 구원, 강건함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자유와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 위함이 되어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